

선박승무원 작업안전활동 실태 조사

김재호* · 한병조***
 *, **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Investigation on Safety Activities relate to Works of Seafares

Jae-Ho Kim* · Byung-jo Han***
 *, **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

핵심용어 : 선원, 안전, 분석, 교육, 점수

Key Words : Seafares, Safety, Analysis, Education, Score

연구방법

1) 조사 대상
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선원을 가운데 최근 1개월 이내 승선경력이 있는 교육생 중 437명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

2) 조사 도구

- 안전의식 관련 각 각 문항별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를 부여하여 기록하게 함
- 각 점수의 합한 총점 평균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
-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α는 0.918로 신뢰성이 있음
- 경력, 선박 등 일반적 특성과 안전의식 7가지 영역간 비교조사.
 - 요인1: 선내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과 정비 영역(S1)
 - 요인2: 선내 유해위험 기계설비 영역(S2)
 - 요인3: 선내 안전의식 배양 영역(S3)
 - 요인4: 선내 안전 활동 영역(S4)
 - 요인5: 선내 안전보건교육 영역(S5)
 - 요인6: 선내 안전관리체계 영역(S6)
 - 요인7: 선내 정리 정돈 영역(S7)

일반적 특성

Table 5. Distribution of score for job characteristics (n=437)

| 구분 | S1 | S2 | S3 | S4 | S5 | S6 | S7 | Total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근무부서 | | | | | | | | |
| 갑판부 | 68.84 | 73.69 | 71.76 | 65.47 | 65.57 | 63.91 | 75.69 | 69.27 |
| 기관부 | 65.78 | 73.60 | 73.01 | 65.55 | 63.89 | 61.80 | 76.70 | 68.62 |
| 기타 | 59.38 | 67.71 | 71.67 | 66.67 | 66.25 | 61.88 | 73.75 | 66.76 |
| F-Value | 3.65* | 1.68 | 0.36 | 0.06 | 0.38 | 0.73 | 0.54 | 0.37 |

영역별 안전의식 수준

Table 1 Result on response distribution a categories (n=437)

| 안전의식분류 | Mean | sd | t-value | p-value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안전보호구(S1) | 66.84 | 18.16 | 76.94 | P<0.01 |
| 유해 위험설비(S2) | 73.32 | 15.44 | 99.29 | |
| 안전의식배양(S3) | 72.36 | 15.49 | 97.66 | |
| 안전활동(S4) | 65.57 | 15.65 | 87.60 | |
| 안전보건교육(S5) | 64.79 | 21.07 | 64.27 | |
| 안전관리체계(S6) | 62.78 | 18.12 | 72.44 | |
| 정리정돈(S7) | 76.08 | 15.03 | 105.81 | |
| Total | 68.83 | 14.36 | 100.17 | |

결론

1) 영역별 안전의식수준

- 영역별 안전의식 수준 점수는 작업장정리정돈 76.08점으로 가장 높았고, 안전관리체계 62.78점으로 가장 낮아 안전활동 영역 간 안전의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(p<0.01).

2) 승선특성 안전의식 수준

- 외항이 71.28점 내항이 64.44점으로 분포 하였으며 전 영역에서 외항을 향해하는 선원이 유의하게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다(p<0.01).
- 선박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수준은 특수화물선이 74.01점, 여선 58.27점으로 여선이 상선보다 안전의식 수준이 우려할 정도로 유의하게 낮게 조사되었다(p<0.01).

* First Author : medjaeho@seaman.or.kr
 † Corresponding Author : xylitol19@seaman.or.kr